

계 열 문 항 1

<가>

고도로 양극화되고 불평등한 우리 사회에서 빈민들은 경제적 우위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다. 빈민들은 부자들을 텔레비전이나 잡지 표지 등에서 쉽게 볼 수 있지만, 부자들은 빈민을 볼 기회가 거의 없고 일부 공공장소에서 마주친다 해도 가난하다는 걸 눈치채기가 쉽지 않다. 중고품 위탁 판매점과 월마트 같은 상점들 덕분에 빈곤층은 실제보다 더 여유 있는 계층처럼 보이도록 치장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40년 전에는 도심과 애팔래치아 산맥에 흩어져 있는 빈곤 지대를 다룬 ‘빈곤의 발견’이 가장 인기 있는 기사 주제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빈곤 지대의 ‘사라짐’을 다루고 있는 기사를 볼 가능성이 더 높는데, 이는 이른바 중산층의 상상력 부족 때문이다.

부자들이 빈민들과 같은 공간에 있거나 빈민들과 공유하는 서비스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부자들이 빈민을 보지 못하는 이유로 꼽힌다. 공립학교와 기타 공공서비스의 수준이 점점 떨어지면서 여유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사립학교에 보내고, 여가 시간을 전처럼 동네 공원에서 보내는 대신 회원제 헬스클럽과 같이 출입이 통제되는 공간에서 보낸다. 그들은 버스나 지하철도 이용하지 않는다. 여러 인종이 함께 모여 사는 동네를 떠나 멀리 교외로, 주민들만 출입할 수 있게 담장을 둘러친 고급 주택 단지로, 혹은 경비가 있는 고층 아파트로 주거를 옮긴다. 또 ‘시장 세분화’라는 흐름에 발맞춰 부자들을 겨냥한 상점에서만 쇼핑을 한다. 부자집 아이들도 여름방학 동안 인구의 ‘나머지 반’이 어떻게 사는지 알아볼 목적으로 인명 구조원이나 웨이트리스나 호텔 청소부로 일하던 전통을 더 이상 따르지 않으려는 추세다. 『뉴욕 타임스』의 보도에 의하면, 이제 이들은 오랫동안 꼭 거쳐야 하는 관문으로 여겼던 ‘힘들고, 임금도 낮고, 따분한 여름 일터’에서 일하는 것보다 진로에 도움이 될 서머스쿨이나 전문직 인턴 과정을 이수하기를 원한다.

정치적 분위기도 빈곤과 가난한 사람들에 관해 침묵을 지키자는 ‘암묵적 합의’라도 맺은 듯하다. 민주당으로는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있는 ‘유례없는 호황’이라는 시기에 구태여 문제점을 찾아 부각시키고 싶지 않을 것이고, 공화당의 경우는 ‘지금껏 우리에게 익숙했던 복지’를 종식시키고 나서는 아예 빈민들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어졌다.

<나>

가난한 사람이라고 나쁜 집에 살 이유는 없다. ‘사회주택’이 살고 싶지 않은 곳이라는 낙인이 없기에 중산층 중에서도 사회주택에 대한 거주 수요가 있다. 대부분의 주택들이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어떤 주택이 사회주택인지 외관만 봐서는 알 수 없다. 자연스럽게 소셜 믹스(social mix)가 가능했던 배경으로 꼽힌다. 이는 대부분 네덜란드 사회주택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는 점이기도 하다. 인터뷰를 했던 암스테르담 자유대학의 피어 스메스 교수는 “네덜란드 사회주택은 외부에서 보기에 디자인이 좋다”며 “사회주택과 일반주택 구별이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프랑스, 벨기에, 독일 등 다른 나라에서는 사회주택을 알아챌 수 있어 ‘좋지 않은 집에 사는구나’라는 낙인효과가 심하지만, 네덜란드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선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소셜 믹스는 한국에서는 분양과 임대를 함께 조성해 사회·경제적 배경이 다른 주민들이 어울려 사는 것을 뜻한다. 네덜란드 등 유럽국가에서는 이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종교, 연령, 인종적인 소셜 믹스를 모두 포괄하는 듯했다. 네덜란드는 주택을 공급하는 기관과 민간 차원에서 이에 대한 자발적인 노력과 시도를 하고 있었다. 주택공급 과정에서 소셜 믹스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이들 스스로도 “다양성에 대한 역사가 있었다”면서 한국 사회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전제했다.

네덜란드 사회주택협회의 한 관계자는 “암스테르담에도 부유층이 사는 동네와 저소득층이 많은 동네가 있지만 극단적으로 가난한 동네는 없다”며 “암스테르담의 특징 중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주민들은 다양한 소득 수준의 계층들이 섞이기를 원하고 있고, 또 하나는 낮은 소득의 사회주택 거주자가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계속 거주를 하거나 혹은 해당 주택을 민간시장에 파는 과정에서 다양한 계층들

이 섞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회주택의 매매 과정에서도 이들은 “재정보다는 소셜 믹스 차원”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처럼 소셜 믹스는 편견 없이 다른 사람과 교류하고 이해하는 정책으로 가치가 있다. 갈수록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과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사회주택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왜 소셜 믹스를 시도하는가’를 알 수 있다.

<다>

미국인의 삶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문제는 두 가지 악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하나는 재정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시민의식 문제다. 우선 공공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세금으로 공공서비스를 지원하길 꺼려하면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 또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곳에 학교, 공원, 운동장, 시민회관 같은 공공시설이 들어서지 않게 된다. 한때 사람들이 모이고 시민의 미덕을 가르치는 비공식 학교 구실을 했던 공공시설이 확연히 줄어든다. 공적 영역이 공동화(空洞化)되면 민주시민 의식의 토대가 되는 연대와 공동체 의식을 키우기가 어려워진다. 그리하여 불평등은 공리나 합의에 미치는 영향과는 별개로 시민의 미덕을 좀먹을 수 있다. 시장에 매혹된 보수주의자들과 재분배에 주목하는 진보주의자들은 이러한 손실을 간과한다.

공적 영역이 잠식되는 것이 문제라면, 해결책은 무엇일까? 정치가 공동선을 추구한다면 시민적 삶의 기초를 재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재분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똑같이 공공기관과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시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투자해야 할 것이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모두 자녀를 보내고 싶어 하는 공립학교, 상류층 통근자를 끌어들이 대중교통 체계, 그리고 보건소, 운동장, 공원, 레크레이션 센터, 도서관, 박물관처럼, 사람들을 배타적인 공동체로부터 끌어내 민주시민 의식을 공유하는 장소로 모이게 하는 시설 등이 그것이다.

나아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강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시민들이 사회 전체에 관심을 갖고 공동선에 헌신하는 태도를 키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좋은 삶에 대한 판단을 순전히 개인적인 영역으로 남겨두지 말고 시민의 미덕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보다도 더 활발하게 정치·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적 생활이 필요하다. 참여하는 정치는 회피하는 정치보다 시민에게 더 많은 이상을 불어넣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의로운 사회 건설에 더 유망한 기반을 제공한다.

1. <가>의 상황을 <다>를 통해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의 의미를 논하시오. (1,000±100자)

계 열 문 항 2

<가>

인간에게 특정한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바로 결함이라는 것. 그러므로 인간이 배울 만한 가장 소중한 것과 인간이 배우기 가장 어려운 것은 정확히 같다. 그것은 바로 타인의 슬픔이다. 이 역설을 인정할 때 나는 불편해지고 불우해진다. 그러나 인정은 거기서 멈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 하는 것이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심장이다. 심장은 언제나 제 주인만을 위해 뛰고, 계속 뛰기 위해서만 뛴다. 타인의 몸속에서 뛴 수 없고 타인의 슬픔 때문에 멈추지도 않는다. 타인의 슬픔에 대해서라면 인간은 자신이 자신에게 한계다. 그러나 이 한계를 인정하되 긍정하지는 못하겠다.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슬퍼할 줄 아는 생명이기도 하니까. 한계를 슬퍼하면서, 그 슬픔의 힘으로, 타인의 슬픔을 향해 가려고 노력하니까. 그럴 때 인간은 심장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슬픔을 공부하는 심장이다. 아마도 나는 네가 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시도해도 실패할 그 일을 계속 시도하지 않는다면,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나. 이기적이기도 싫고 그렇다고 위선적이기도 싫지만, 자주 둘 다 되고 마는 심장의 비참. 이 비참에 진저리 치면서 나는 오늘도 당신의 슬픔을 공부한다. 그래서 슬픔에 대한 공부는, 슬픔 공부다.

<나>

자기 고통의 '지금 당장'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 다른 사람의 고통이다. 그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고통이 눈에 들어오는 것은, 그 자신이 고통에 예민해져 있고 고통을 겪는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절실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선아는 처음 사람들과 함께 걸었을 때 자기 고통을 그들에게 말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들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고통의 당사자이니 같이 걷는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상대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자기 한탄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겼다. 그런데 선아가 사람들과 함께 걸으면서 자기의 이야기 사이사이에 그들의 이야기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고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흔한 말이지만 자기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다 각자의 고통이 있었다. 종류와 강도, 그리고 대처법은 다르지만 말이다. 다른 사람의 고통이 보이고 그 고통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아가 깨닫게 된 것이 있다. 고통을 겪는 이들이 한결같이 동시에 겪는 것이 바로 고통이 야기하는 또 다른 고통인 외로움이라는 것을 말이다.

선아가 집단 상담에서부터 들판을 걷는 데 이르기까지 만난 사람들의 고통은 모두 다 이 외로움에 닿아 있었다. 선아는 고통의 절대성에 몸부림칠 때 자기만 괴롭고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바깥을 발견하고 그 바깥의 소리를 들으며 선아는 깨닫는다. 고통을 겪는 자는 모두가 다 외로움을 느끼고 그 외로움에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을 말이다. "나만 외로운 줄 알았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픈 사람들은 다 외롭더라고요. 외로워서 힘들어하더라고요."

고통의 절대성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선아가 발견한 것은 의외의 것이다. 고통은 절대적이기에 소통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절대성은 보편적이다. 그렇기에 고통은 사람을 나'만'의 세계로 밀어 넣는다. 그러나 그 절대성이 나'만'을 나'만'에게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그렇다는 것을 알게 한다. 내가 외로운 만큼 너도 외롭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사람은 서로에 대한 연민을 느낄 수 있다. 고통 자체는 절대적이어서 교감하고 소통할 수 없지만, 바로 그 교감하고 소통할 수 없다는 것이 '공통의 것'임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 그것은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된다. 고통의 절대성 자체가 공통의 것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고통에 대해 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고통의 절대성이 만드는 외로움에 대해, 그 외로움을 마주 대하고 넘어서려 했던 자신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다. 외로움이 세계를 파괴하고 사람을 고립시켰지만, 바로 그 외로움이 보편적이라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외로움은 통하게 된다. 지금 몸부림치는 다른 이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는 것이다.

<다>

차별 경험과 건강에 대해 연구하는 하버드보건대학원의 낸시 크리거 교수는 설문이나 인터뷰를 통해 차별과 같이 예민한 경험을 측정할 때는 차별을 경험하는 것, 그 경험을 차별이라고 인지하는 것, 그 인지한 차별을 보고하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비슷한 형태의 차별을 경험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것을 차별로 인지하지 못하고, 또 차별을 인지한다고 해서 모두가 그것을 연구자에게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인종을 대상으로 진행된 한 연구는 미국 사회에서 약자인 흑인, 여성, 아시아인들이 차별을 경험했을 때, 그 경험을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차별을 있는 그대로 인지하는 것보다 심리적으로 불편함이 덜하기 때문이라고 연구는 설명합니다.

구직 과정의 차별에 대해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답한 여성 노동자와 학교 폭력에 대해 ‘아무 느낌 없다’라고 답한 남학생은 모두 자신이 경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인지하거나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차별을 겪고도 자신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말한 여성 노동자들은 차별을 경험했다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아팠습니다. 학교 폭력을 겪은 후에 아무렇지도 않다고 이야기했던 다문화가정 남학생들 또한 학교 폭력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말할 수 있었던 학생들보다 더 많이 아팠습니다.

사회적 폭력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경험을 말하지 못합니다. 그 상처를 이해하는 일은 아프면서 동시에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스스로 말하지 못하는, 때로는 인지하지 못하는 그 상처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몸은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물고기 비늘에 바다가 스미는 것처럼 인간의 몸에는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의 시간이 새겨집니다.

2. <가>의 ‘슬픈 공부’의 가치를 <나>를 통해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의 문제 상황이 극복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시오. (1,000±100자)